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두흔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덕 철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6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 두 혼

고두흔 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년 6월

감사의 글

논문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새삼 고맷게 느껴집니다.

논문의 방향부터 완성될 때까지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이덕철 교수님과 송동호 교수님, 신의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일처럼 설문지 작업을 도와 주셨던 외삼촌과 엄마, 아빠, 그리고 바쁜 가운데도 친구를 위해 밤을 같이 지새주었던 미선이에게 오늘의 이 보람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 한 권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고 두 흔

<차례>

국문 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이론적 배경	6
가. 자살생각	6
나. 부모양육태도	7
다. 학교생활적응	9
3. 연구 가설	12
II. 연구 방법	12
1. 연구 대상	12
2. 연구 도구	13
가. 자살생각	13
나.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	13
다.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14
3. 연구 절차	15
4. 자료 분석	15
III. 연구 결과	16
1. 청소년 자살생각의 성별에 따른 차이	16
2. 청소년 자살생각의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17
3. 청소년 자살생각의 음주유무에 따른 차이	17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18
5.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19
IV. 고찰 및 결론	21
참고문헌	29
영문요약	36
부록(설문지).....	37

표 차례

표 1.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영역별 문항	14
표 2.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영역별 문항	15
표 3.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16
표 4. 흡연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17
표 5. 음주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17
표 6.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간의 상관분석	18
표 7.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20

<국문요약>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살생각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남학생 600명, 여학생 273명이 포함되었다.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도구로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도구로는 ‘학교생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군과 음주군이 비흡연군과 비음주군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살생각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들 중 일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와 과보호도,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가 자살생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 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각적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뒤 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에 근거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가족 유대감의 향상, 부모 교육, 지역사회 지지망을 구축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겠다.

핵심 되는 말 : 청소년 자살생각,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덕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두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살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극단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 할 수 있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40초당 1명이 자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5~44세 사이의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청소년기는 그들이 지닌 발달적 특징에 의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전환기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처음 직면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주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일탈행동이나 사회-심리적 부적응 상태 및 심지어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자살시도(suicide attempt)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다른

문제 행동은 문제발생 이후에 그에 대한 처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자살의 경우 상황 발생 후의 치료적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살은 어떠한 문제행동보다 그 심각성과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가 할 수 있다²⁻⁶.

각종 통계들은 청소년 자살률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에서도 청소년 자살인구(10~24세)는 청소년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3.5~7.5%가 자살시도(suicide attempt)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서도 10 만 명당 13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층의 자살률은 전체 연령층의 자살률 증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살 청소년 가족이 수치심이나 불명예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경우까지 더한다면, 보고된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1,7,8}.

자살률의 증가 추세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실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자살시도보다 많은 빈도가 보고되고 있고, 청소년시기에는 21.1~28.8%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47.1%가 중간 정도 이상의 자살위험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의 41%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임상 표본에서는 그 정도가 75%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행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5.4%가 한두 번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중 11.3%의 청소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살하고픈 충동을 느꼈고,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7.0%나 된다고 하였다. 자살률에 더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살률이 높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⁹⁻¹¹.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가정과 관련된 요인, 학교생활 요인, 심리 사회학적 요인,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변인이 가정과 학교이다³.

가족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환경, 가정문제, 누적된 생활사건, 감독과 통제, 의사소통, 훈육의 정당성,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적 지지, 부모 형태, 부모 갈등, 부모-자녀의 부적절한 관계형성, 부모의 성격적 결함 및 가족 붕괴요인 등이 있다. 최근 가족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형제 혹은 자매 집단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으며, 자녀의 사고와 생활 방식은 물론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양육태도, 특히 자녀가 느끼는 부모 양육태도는 가족 환경적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자살을 시도했던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증상과 아동의 정신사회적 특징이 깊은 연관성이 보고되었다^{3,10,12-21}.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 영역이 학교생활(38%)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늘날 가정이 지닌 교육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 성장발달을 통한 정서적 대처능력배양, 진로탐색, 교사 및 교우와의 인격적 대인관계 형성 등 모든

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소이며 기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학교는 더 나은 학업능력을 요구하는 장소로서 학교에서 받는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중퇴와 집단 따돌림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고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생활이 좋을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행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살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3,13,16,17,22-25}.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살 위험도가 높은 군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자살의 위험을 줄이고 자살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많은 자살 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정말 자기가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한 청소년의 10%만이 1년 내에 자살을 재시도하고, 나머지 90%는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살시도를 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가 있은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을 단지 고통을 회피하려는 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70~80%에서 자살을 예고하는 행동 단서가 있었다는 점이 더욱 예방적 중재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자살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3,6,9,26-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동반자살이나 층동자살을 접하면서 좀더 다각적으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넷째,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가. 자살생각

자살(suicide)이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자살 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였다¹.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자살행동(suicide behavior)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인생이 가치 없다’ 또는 ‘죽고 싶다’는 생각과 같은 보편적인 현상에서부터 자신이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된다. 둘째, 자살시도는 자기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고의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Durkheim(1951)은 이를 “자살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나 다만 죽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살시도는 완전한 자살과는 달리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매우 어렵지만, 완전한 자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8배, 심지어 50~200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셋째, 자살행동은 자기 스스로 만든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이 끝남을 뜻하며, 다른 말로는 죽음에 이른 자살(completed suicide)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살을 개념화 하는 것은 자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6,30-32}.

자살생각은 자살기도, 자살위험,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 중의 한 과정이다. Carison과 Cantwell(1982)의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심각했던 사람들의 42%와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집단에서는 한 명도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 Reinherz(2006)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했던 군에서 하지 않았던 군에 비하여 자살시도를 12배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시도군이 자살을 시도해보지 않은 군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하는 군이 하지 않은 군보다 수행능력과 결정능력 같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3,9,11,26-29,33-36}.

나. 부모양육태도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환경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갖는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성장 초기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그 방식에 의하여 성격특성이 형성되고, 사회적응법, 학습 동기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37,38}.

부모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적 특성이나 민족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들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 행동,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영아의 탐색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은 아동의 사회성이나 인지능력의 발달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⁹⁻⁴².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양육태도를 크게 유형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그는 부모-자녀관계를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배적 태도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적 태도는 간섭형과 불만형, 복종적 태도는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적 태도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보호형인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보호하고, 아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한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거부형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적대감의 표출, 벌주기 또는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Schaefer(1965)의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은 애정-적의, 통제-자율의 두 가지 차원으로 대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적의-자율 사이의 방임형과, 애정-통제 사이의 익애형이 대조를 이룬다. Becker(1964)는 부모의 행동을 온정-적대, 제한-허용으로 나눈 후, 온정에는 수용, 애정, 승인,

이해, 자녀중심의 행동, 빈번한 설명, 의존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 칭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적대에는 거부, 질책, 부모의 부정적 반응 등을 포함하였다. 제한에는 자녀들의 예의범절, 배변연습, 정리정돈, 소란 등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들었고, 허용에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들었다. Baumrind(1967)는 양육태도 유형을 권위주의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로 구분하였는데, 권위주의적 태도란 규칙이나 논리적인 설명 없이 강요하는 태도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는 태도를 허용적 태도라 한다. 발달심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지되어 온 양육형태는 Maccoby와 Martin(1983)의 네 가지 양육형태로 이들은 애정과 통제의 두 주요 차원을 교차시켜 부모의 양육형태를 민주형, 전제형, 익애형, 방임형으로 나누었다^{25,43,44}.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부모에 의해 얻어지거나 제삼자가 관찰한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38,40,41,45,46}.

다. 학교생활적응

적응(adjustment)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적응이란 실체의 요구에 대한 순응(adaptation)이며, 둘째는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고,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다. 이 두 가지면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 두 과정이 서로 병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청을 개인이 무리 없이 원만히 잘 받아들여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균형과 불안 등의 긴장을 없게 하여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응은 생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다. 따라서 적응은 환경을 개인의 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⁴⁷. 특히 청소년기 적응은 과거에는 가정이 그 기능을 거의 전담하였으나, 근래에는 가정의 기능은 약화된 반면 다른 사회적 기능, 무엇보다도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그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38,48}.

학교생활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총체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교육적이거나 혹은 비교육적 영향의 총체도 학교생활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운동회, 여행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하게 되며, 학교 생활의 구성요소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가 있고 학급생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장호성(1987)은 학교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설명하였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노숙영(1997)은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규정하였다. 주현정(1998)과 정유진(1999)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Spencer(1999)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특성과 학습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적응의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학교생활부적응은 학업동기, 학업성취, 학교참여, 지속성, 학교출석, 학습준비, 그리고 학교졸업 등에서의 부적합으로 이어짐을 주장하였다^{25,47,49,5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개인 특성 변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변인은 청소년이 형성하고 있는 대인관계(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질로서, 그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이고 지지적인지를 의미한다.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변인은 학업동기와 심리적 안녕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이다. 학업동기는 학생이 학교공부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심리적 안녕이란 일반적인 정서상태가 안정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Pintrich(2001), Birch & Ladd(1996) 등의 연구에서 학업동기와 심리적 안녕과 학교생활적응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종교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 특성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종교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양친이 생존해 있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8,49}.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을 가정하고 이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청소년의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0개 학급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971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성실하지 못한 98부를 제외한 873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을 남학생 600명, 여학생 27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연구 도구

가.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Lovacs & Weissman, 1979)를 사용한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다.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점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민섭(1990) 등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것을 사용한다. Range와 Kontte(1997)는 20여 개의 자살 측정 도구 중 SSI가 가장 우수한 측정도구 중 하나임을 밝힌바 있다.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0~38점의 범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 α 는 0.87로 높게 나타났다^{3,51-}

54.

나.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Parker, Tulping & Brown, 1979)는 핵심적인 부모 양육 차원인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자기 보고 측정도구로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하여 각각 25문항씩으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한다. 부모-자녀 결합형태 중 돌봄 척도의 환산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척도의 환산점수가 낮을수록 자녀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돌봄(care)” 차원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돌봄의 부족, 즉 무관심 또는 거부적인 부모의 태도 대 따뜻함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보호(overprotection)”차원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사생활 침입, 과잉 통제, 그리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동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자율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예언 타당도의 증거는 유의 하다고 보고되었다.(Parker,1979,1981,1984). 한국판 PBI는 송지영(1992)에 의하여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보고된 신뢰 계수 α 는 0.89이었다(표 1)^{55,56}.

표 1.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영역별 문항

영역	문항
돌봄	1.2*.4.5.6.11.12.14.16*.17.18.24
과보호	3*.7*.8*.9.10.13.15*.19.20.21*.22*.23.25

*역 채점 문항

다.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에게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이 질문지는 총 32개의 문항과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보면, 담임 교사에 대한 호감, 인정, 대화 정도, 존경심 등을 측정하는 교사관계, 학급 친구들과의

어울림, 대화 상대, 도움, 인기도, 괴롭힘 등을 측정하는 교우관계, 수업시간에 발표, 즐거움, 유익함, 숙제, 이해, 집중도, 질문 등을 측정하는 학교수업, 학교에서 정숙, 좌측통행, 주변 활동, 시설 이용, 청결, 질서와 규율에 대한 느낌 등을 측정하는 학교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 α 는 0.86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25,47}.

표 2.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영역별 문항

영역	문항 번호
교사관계	1.5.9.13.17.21*.25*.29
교우관계	2.6.10.14.18.22.26*.30*
학교수업	3.7.11.15*.19.23.27*.31*
학교규칙	4.8.12.16.20.24.28*.32

*역 채점 문항

3. 연구 절차

각 학교장과 담당 선생님의 동의를 얻은 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요령을 간략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반의 설문지는 부장선생님을 통해 취합된 날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각각 검토하여 적합하지 못한 설문지의 선별 과정을 거쳤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SPSS 12.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과 자기상에 따라 자살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나. 부모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청소년 자살생각의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 자살생각의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5.61, p<.001$). 여학생($M=29.73, SD=5.47$)이 남학생($M=27.57, SD=4.83$)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성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자살생각	남학생	600	27.57	4.83	-5.61***
	여학생	273	29.73	5.47	

* $p<.05$, ** $p<.01$, *** $p<.001$

2. 청소년 자살생각의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청소년 자살생각의 흡연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t=3.31, p<.01$)가 관찰되었다. 흡연군($M=29.03, SD=5.33$)이 비흡연군($M=27.87, SD=5.00$)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표 4. 흡연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흡연유무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자살생각	유	282	29.03	5.33	3.31**
	무	591	27.87	5.00	

* $p<.05$, ** $p<.01$, *** $p<.001$

3. 청소년 자살생각의 음주유무에 따른 차이

음주군과 비음주군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의 청소년 자살생각에는 유의한 차이($t=4.80, p<.001$)가 관찰되었다. 음주군($M=29.01, SD=5.49$)이 비음주군($M=27.38, SD=4.56$)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표 5).

표 5. 음주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음주 유무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자살생각	유	463	29.01	5.49	4.80***
	무	410	27.38	4.56	

* $p<.05$, ** $p<.01$, *** $p<.001$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앞서,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표 6.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간의 상관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9
1	1								
2	.24***	1							
3	.30**	.52**	1						
4	-.21**	-.34**	-.21**	1					
5	-.19**	-.24**	-.33**	.70**	1				
6	-.03	-.07	-.09**	-.02	-.02	1			
7	-.02	-.10**	-.16**	.06	.03	.40**	1		
8	-.08**	-.11**	-.08*	.08*	.06	.17**	.47**	1	
9	-.11**	-.11**	-.14**	.04	-.01	.39**	.51**	.36**	1

1.자살생각, 2.돌봄모, 3.돌봄부, 4.과보호모, 5.과보호부, 6.교우관계, 7.학교수업, 8,학교규칙,9.교사관계, *p<.05, **p<.01, ***p<.001

청소년 자살생각과 부모양육태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돌봄모($r=.24$, $p<.001$), 돌봄부($r=.30$,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돌봄 척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모($r=-.21$, $p<.01$), 과보호부($r=-.19$,

$p < .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청소년이 인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과보호 척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자살생각은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칙($r = -.08, p < .01$), 교사관계($r = -.11, p < .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학교규칙과 교사관계의 적응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규칙보다는 교사관계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은 자살생각과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돌봄모인 경우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수업($r = -.10, p < .01$), 학교규칙($r = -.11, p < .01$), 교사관계($r = -.11, p < .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돌봄모일 경우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우관계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돌봄부와는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r = -.09, p < .01$), 학교수업($r = -.16, p < .01$), 학교규칙($r = -.08, p < .01$), 교사관계($r = -.14, p < .01$)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보호모는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칙($r = .08, p < .05$)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교우관계, 학교수업, 교사관계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과보호부인 경우는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다.

5.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R ²	ΔR^2	F
1	돌봄부	.23	.23***	.09	.09	84.27***
2	성별 ¹	2.31	.21***	.12	.12	58.58***
3	과보호모	-.18	-.16***	.15	.14	49.40***
4	흡연유무 ²	.92	.08*	.16	.16	41.30***
5	교사관계	-.12	-.08**	.17	.16	34.64***
6	음주유무 ²	.79	.08*	.17	.17	29.73***

¹성별은 명목변수로서 회귀분석을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남학생=0, 여학생=1

²흡연유무와 금연유무는 명목변수로서 회귀분석을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무=0, 유=1

*p<.05, **p<.01,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beta=.23$, $p<.001$), 과보호모($\beta=-.16$, $p<.001$),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beta=-.08$, $p<.01$)와 흡연유무($\beta=.08$, $p<.05$), 음주유무($\beta=.08$, $p<.05$), 성별($\beta=.21$,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과보호모,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돌봄부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지만, 과보호모일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 학교생활에서 교사관계와 적응을 잘 할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지며, 음주군, 흡연군과 여학생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변인들은 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중 돌봄모, 과보호부와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은 제외된 변수로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에 유의미함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정철순 등, 2001; 조성진 등, 2002; Sidhartha T. 등, 2006; 강미선, 2007)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살의 고위험군임이 밝혀졌다. 주요우울장애로 내원한 환자군을 2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Oquendo MA.,2007)에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자살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살생각에서 실제 자살계획이나 시도 진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9,26,57-61}. 따라서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더 민감한 대처와 각별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살생각의 차이를 흡연유무와 음주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흡연군과 음주군이 비흡연군과 비음주군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나, 음주, 약물 같은 물질이용의 조기 사용은 행동 장애와 정신과적 이상의 관련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Cho H.(2007)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서 흡연과 음주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밝혀졌다. Kessler RC.(2007)가 시행한 12개월간의 추적 관찰 연구에서는 흡연군과 자살행동간의 odds ratio가 2.9~3.1로 측정되었다. 또한 Boden JM.(2008)의 연구에서는 흡연 횟수가 자살생각과 자살기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흡연과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는 밝혀졌다(Affi TO. 등, 2007; Park HS. 등, 2006). Bronisch T.(2007)의 연구에서는 정기적 흡연 뿐만 아니라 간헐적 흡연 또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Riala K.(2007)의 연구에서는 하루 15개피 이상 흡연을 하는 흡연 청소년에서 자살시도는 2배 이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자살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은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춘기 이전, 아동기에 음주를 시작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서 자살시도가 의미 있게 높았다(Swahn MH.,2008).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Pfaff JJ. 등, 2007)에서도 음주 양과 빈도는 자살시도와 연관이 있었다^{16,59,62-71}. 흡연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소년 여학생 흡연이 성인 여성 흡연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음주는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남용 되고 있으며, 흡연과 함께 만성 질환의 위험인자이다⁷²⁻⁷⁴.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 흡연과 음주와 자살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흡연군과 음주군을 자살의 일차 위험군으로 인식하고, 각별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물질관련 교육에 이러한 사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돌봄모일 경우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부인 경우는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 모두에서 부정적인 적응도를 보이나, 과보호모에서는 학교규칙에 긍정적인 적응도를 보인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이주희,2004)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폐쇄형으로 지각한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친애적이고 자율적인 가정의 아동이 거부적이고 타율적인 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주희,2004;이하영,2002)와 아버지의 돌봄 변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최지은·신용주,2003)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43,48,50}. 즉, 개방적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와 간섭 하에 익숙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나친 애정과 관심은 오히려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자살생각,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을 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살생각은 성별, 음주유무, 흡연유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들 중 일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많은 관련성을 보임으로서 가정이

어떠한 환경보다 중요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과보호모와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과보호일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 이것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들과 부정적 상관을 보인 기존의 연구(문유선 등, 2001)와 상이한 결과이다. Adam KS.(1994)의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높은 군이 부모에 대하여 과보호 척도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의 자살행동을 부모의 권위주의와 '효'에 의해 억압된 적개심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성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이만홍 등, 1982)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가 발달상 독특한 한 시기(고등학생)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사회적 역할 및 심리적 성숙 등 많은 측면에서 아직 사회적 역할 및 심리적 성숙 등 많은 측면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고등학생에게 부모의 통제나 엄격한 태도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나 엄격함의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하여 통제적 경향이 높은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연구대상이 같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윤성림(1993)의 연구에서, 오히려 자살생각경험집단이 부모의 통제나 엄격성이 적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통제는 자녀가 잘 기능하도록 돕는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3,37,75}.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살이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심리적인 갈등보다는 가족을 걱정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할 때도 있다^{76,77}. 자살기도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나 가족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가정 밖보다는 그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가정내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자살단서를 미리 남기고 자살행동의 심각성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과도 이런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3,20,75}.

부모양육태도의 돌봄 척도가 낮을수록 청소년 자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Heider D.,2007; Adam KS.,1994; McGarvey EL.,199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돌봄부의 척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 이는 돌봄을 청소년이 부모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지함으로써, 부모의 돌봄이 크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의식(guilt feeling)이 더 많아짐으로써 자살생각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돌봄을 어머니 경우보다 더 크게 받아 들임을 알 수 있다. 박혜원(2003)이 3~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애정 차원에서 높은 집단의 자녀가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비록 연구 대상군이 다르나,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돌봄부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어머니에게 일차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 견해는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초기 인성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유아의 사회화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 근래에 들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아의 인지학습, 성 역할, 사회성, 성취동기 등 제반 영역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의 질에 대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나 다른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보다도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에서 1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단호하게 통제를 할수록 자녀는 안정적인 적응을 보였다^{15,19,44,75,78-81}.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돌봄부일수록 청소년 자살생각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로 인지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돌봄모, 과보호모와 과보호부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돌봄부에서 성별간 차이가 관찰되었다(여학생 28.30 ± 5.28 , 남학생 27.55 ± 4.74 , $t=2.10$, $p<.05$). 자살생각이 더 많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부모양육태도에서 돌봄부로 더 많이 인지하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생활에서 교사관계와 적응을 잘 할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 기존 연구(김정화·김연주,2006;최지은·신용주,2003)에 의하면, 교사와의 관계변인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의 주요인이 ‘교사와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응할 정도로 선생님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기에 이런 선생님과 갈등은 학생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사-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적인 교류뿐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가 수반되기 때문에 교사의 반응과 교사-학생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질과 내용은 학생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심리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사의 괴롭힘을 받은 학생에서 도박이나, 약물남용 같은 문제 행동이 더 많이 관찰된다. 실제 기존 연구(정영순, 2001)에서 교사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12,25,48,82-8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고, 다각적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의 일부 지역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 등 고등학생 이외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 이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만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을 조사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높게 나왔지만, 대상자의 주관적 왜곡 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더욱이 설문조사가 교실 상황에서 선생님의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피험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찰법이나 면접법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성이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한 시기에 횡단적으로 실시되어 자살생각과 몇몇 변인과의 관련여부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러 변인간의 역동성 및 심화과정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제 누구에게 자살행동이 나타날지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동일대상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자살행동의 선행요인과 그 전개 양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 부모양육의 질을 평가 할 수 없었다. 향후 실제 부모양육의 질과 가족 기능과 역동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만 조사하였는데, 부모 이외, 즉, 조부모, 대리모 등 다양한 형태의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의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자살생각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만으로 완전히 설명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살시도 후에 시행되는 치료는 사후 대책에 불가하므로 자살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뒤 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과과정(curriculum)에 근거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회정책으로도 발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일차적 예방과 이차적 예방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가족 유대감의 향상, 부모 교육, 지역사회 지지망을 구축시키는 프로그램 역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특징, 상담기법, 자살자의 경고적 징후의 발견법과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1. 세계보건기구. Suicide prevention(SUPRE)[online]: Available at: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suicideprevention/en/. Accessed March 25, 2008.
2. Goldbeck L, Schmitz TG, Besier T, Herschbach P, Henrich G.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 Life Res 2007;16:969-79.
3. 윤성립, 윤진.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Korea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3;6:107-20.
4. 오세진, 임영식. 청소년자살과 예방.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1999;12:141-58.
5. Brausch AM, Muehlenkamp JJ. Body imag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Body Image 2007;4:207-12.
6. 임영식, 오세진. 청소년 자살과 예방. Chung Ang Journal of Social Science 1999;12:141-58.
7. Suicide trends among youths and young adults aged 10-24 years--United States, 1990-2004. MMWR Morb Mortal Wkly Rep 2007;56:905-8.
8.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vailable at: <http://www.nso.go.kr>. Accessed March 25,2008.
9. 정철순, 임숙빈, 고효진.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1;10:521-32.
10. Waldrop AE, Hanson RF, Resnick HS, Kilpatrick DG, Naugle AE, Saunders BE.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among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J Trauma Stress 2007;20:869-79.
11. Reinherz HZ, Tanner JL, Berger SR, Beardslee WR, Fitzmaurice GM.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 J Psychiatry 2006;163:1226-32.
12. 정영순.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Korean Journal of

- Social Welfare 2001;44:346-74.
13. Askland KD, Sonnenfeld N, Crosby A. A public health response to a cluster of suicidal behaviors: clinical psychiatry, prevention, and community health. *J Psychiatr Pract* 2003;9:219-27.
 14. Hintikka U, Marttunen M, Pelkonen M, Laukkanen E, Viinamaki H, Lehtonen J. Improvement in cognitiv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self image among adolescent inpatient suicide attempters. *BMC Psychiatry* 2006;6:58.
 15. McGarvey EL, Kryzhanovskaya LA, Koopman C, Waite D, Canterbury RJ. Incarcerated adolescents' distress and suicidality in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styles. *Crisis* 1999;20:164-70.
 16. Chiou PN, Chen YS, Lee Y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admitted to an acute psychiatric ward in Taiwan. *J Chin Med Assoc* 2006;69:428-35.
 17. Svetaz MV, Ireland M, Blum R.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emotional well-being: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J Adolesc Health* 2000;27:340-8.
 18. Pfeffer CR, Martins P, Mann J, Sunkenberg M, Ice A, Damore JP, Jr., et al. Child survivors of suicid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7;36:65-74.
 19.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003;24:41-53.
 20. 최태산, 홍경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 분석. *교육심리연수* 1997;11:291-322.
 21. Tomori M, Kienhorst CW, de Wilde EJ, van den Bout J. Suicidal behaviour and family factors among Dutch and Slovenian high school students: a comparison. *Acta Psychiatr Scand* 2001;104:198-203.
 22. Brunstein Klomek A,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S, Gould MS.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7;46:40-9.
 23. Daniel SS, Walsh AK, Goldston DB, Arnold EM, Reboussin BA, Wood FB. Suicidality, school dropout, and reading problems among adolescents. *J Learn Disabil* 2006;39:507-14.
 24. 이현림, 천민숙.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연구* 2003;10.

25. 김광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현황과 지도방안. *교육논총* 2002;17:1-15.
26. Kessler RC, Borges G, Walters EE.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 Gen Psychiatry* 1999;56:617-26.
27. Dhossche D, Ferdinand R, van der Ende J, Hofstra MB, Verhulst F. Diagnostic outcome of adolescent self-reported suicidal ideation at 8-year follow-up. *J Affect Disord* 2002;72:273-9.
28. Muehlenkamp JJ, Gutierrez PM. Risk for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who engage in non-suicidal self-injury. *Arch Suicide Res* 2007;11:69-82.
29. Thompson MP, Ho CH, Kingree JB.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delinquency and suicidal behavior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 Adolesc Health* 2007;40:232-7.
30. Dervic K, Akkaya-Kalayci T, Kapusta ND, Kaya M, Merl E, Vogel E, et al. Suicidal ideation among Viennese high school students. *Wien Klin Wochenschr* 2007;119:174-80.
31. Huth-Bocks AC, Kerr DC, Ivey AZ, Kramer AC, King CA. Assessment of psychiatrically hospitalized suicidal adolescents: self-report instruments as predictors of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7;46:387-95.
32. Bridge JA, Iyengar S, Salary CB, Barbe RP, Birmaher B, Pincus HA, et al. Clinical response and risk for reported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pediatric antidepressant treatment: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ama* 2007;297:1683-96.
33. Marzuk PM, Hartwell N, Leon AC, Portera L. Executive functioning in depressed patients with suicidal ideation. *Acta Psychiatr Scand* 2005;112:294-301.
34. Westheide J, Quednow BB, Kuhn KU, Hoppe C, Cooper-Mahkorn D, Hawellek B, et al. Executive performance of depressed suicide attempters: the role of suicidal ideation. *Eur Arch Psychiatry Clin Neurosci* 2008.
35. Groleger U, Tomori M, Kocmur M.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an indicator of actual risk? *Isr J Psychiatry Relat Sci* 2003;40:202-8.
36. Pfeffer CR. Suicide in mood disordered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Adolesc Psychiatr Clin N Am* 2002;11:639-47, x.
37. 허철수. 한.중 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학생생활연구* 2003;24:39-72.
38. 이승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01;85-104.

39. 이윤주, 신지연.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006;5:111-27.
40. 이송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6;24:61-71.
41. 김희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료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2005;53:63-88.
42. 한미녀. 부와 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04;13:279-91.
43. 이하영.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반발심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2002.
44. 박혜원. 유아기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생활과학논문집 2003;4:85-95.
45. Harold GT, Fincham FD, Osborne LN, Conger RD.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 Psychol 1997;33:333-50.
46. 김오남.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5;12:83-104.
47. 백경숙, 권용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004;6:87-99.
48. 최지은, 신용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3;41:199-210.
49. 문은식, 김중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002;16:219-41.
50. 이주희, 탁정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논문집 2004;14:209-10.
51. 박광배, 신민섭.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Kore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0;9:20-32.
52. 박광배, 신민섭.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Kore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1;10:293-314.
53.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90;9:20-32.
54.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0;9:1-19.
55. 송지영.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1992;31:979-92.

56. 권보연.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청구논문;1999.
57. 강미선. 부모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청구 논문; 2007.
58. 홍나미, 정영순.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37:449-73.
59.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옥, 함봉진, et al.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1142-55.
60. Sidhartha T, Jena S. Suicidal behaviors in adolescents. Indian J Pediatr 2006;73:783-8.
61. Oquendo MA, Bongiovi-Garcia ME, Galfalvy H, Goldberg PH, Grunebaum MF, Burke AK, et al. Sex differences in clinical predictors of suicidal acts after major depression: a prospective study. Am J Psychiatry 2007;164:134-41.
62. Kessler RC, Berglund PA, Borges G, Castilla-Puentes RC, Glantz MD, Jaeger SA, et al. Smoking and suicidal behavio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J Nerv Ment Dis 2007;195:369-77.
63. Afifi TO, Cox BJ, Katz LY. The associations between health risk behaviours and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young adolescents. Can J Psychiatry 2007;52:666-74.
64. Boden JM, Fergusson DM, Horwood LJ. Cigarette smoking and suicidal behaviour: results from a 25-year longitudinal study. Psychol Med 2008;38:433-9.
65. Bronisch T, Hofler M, Lieb R. Smoking predicts suicidality: Findings from a prospective community study. J Affect Disord 2007.
66. Cho H, Hallfors DD, Iritani BJ. Early initiation of substance use and subsequent risk factors related to suicide among urban high school students. Addict Behav 2007;32:1628-39.
6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lcohol-related Disease Impact Software(ARDI)[online]. Available at:<http://apps.nccd.cdc.gov/ardi/HomePage.aspx>. Accessed March 25,2008.
68. Park HS, Schepp KG, Jang EH, Koo HY.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in South Korea. J Sch Health 2006;76:181-8.
69. Pfaff JJ, Almeida OP, Witte TK, Waesche MC, Joiner TE, Jr. Relationship between quantity and frequency of alcohol use and indices of suicidal behavior

- in an elderly Australian sample. *Suicide Life Threat Behav* 2007;37:616-26.
70. Riala K, Viilo K, Hakko H, Rasanen P, Group ST-SR. Heavy daily smoking among under 18-year-old psychiatric inpatients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for suicide attempts. *Eur Psychiatry* 2007;22:219-22.
 71. Swahn MH, Bossarte RM, Sullivent EE, 3rd. Age of alcohol use initiation, suicidal behavior, and peer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ong high-risk, seventh-grade adolescents. *Pediatrics* 2008;121:297-305.
 72. Warren CW, Jones NR, Peruga A, Chauvin J, Baptiste JP, Costa de Silva V, et al. Global youth tobacco surveillance, 2000-2007. *MMWR Surveill Summ* 2008;57:1-28.
 73. Brener ND, Kann L, Garcia D, MacDonald G, Ramsey F, Honeycutt S, et al.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selected steps communities, 2005. *MMWR Surveill Summ* 2007;56:1-16.
 74. Eaton DK, Kann L, Kinchen S, Ross J, Hawkins J, Harris WA, et al.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 2005. *MMWR Surveill Summ* 2006;55:1-108.
 75. Adam KS, Keller A, West M, Larose S, Goszer LB. Parental representation in suicidal adolescents: a controlled study. *Aust N Z J Psychiatry* 1994;28:418-25.
 76.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2003;10:11-4.
 77.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청소년 자살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1996;35:1366-75.
 78. Heider D, Bernert S, Matschinger H, Haro JM, Alonso J, Angermeyer MC. Parental bonding and suicidality in adulthood. *Aust N Z J Psychiatry* 2007;41:66-73.
 79. 송명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역할수행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2007.
 80. Dalton WT, 3rd, Frick-Horbury D, Kitzmann KM. Young adults'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ing by mothers and fathers: associations with current relationship quality. *J Gen Psychol* 2006;133:5-18.
 81. Jones DJ, Forehand R, Beach SR.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forecasting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Adolescence* 2000;35:513-30.
 82. 김정화, 김언주.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2006;15:117-29.
 83. 이만홍, 이성훈, 신동범. 한국인의 자살기도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 *최신의학*

1982;25:67-74.

84. 문유선, 김도훈.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연관성(서울시내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01;12:237-44.
85. Delfabbro P, Winefield T, Trainor S, Dollard M, Anderson S, Metzger J, et al. Peer and teacher bullying/victimization of South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prevalence and psychosocial profiles. Br J Educ Psychol 2006;76:71-90.

Abstract

The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Doo Heun K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uk-chul Le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The subjects were 873(600 boys and 273 girls) students in two Cheju high schools.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used for this study;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the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and the School-related Adjustment Scale. Girls significantly more reported having had suicide ideation than boys. Furthermore, suicide ideation was associated with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After gradational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we found that female gender,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caring father, overprotecting mother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ideation. Prevention efforts should focus on bette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outcom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timely public health response, including curriculum, social supporting program, family intervention and education of the school teacher, might prevent further suicide behaviors.

Key Words : adolescent suicide ideation, parent's raising attitude, school adjustment

<별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 수 없고 오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연구를 위해서 사용 될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빠짐 없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 결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할 때 주의사항

1. 한 질문에 한 곳에만 0 표해주세요
2. 깊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대학원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가장 잘 나타낸 항목에 0 표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매우	그다지	덜	전혀	매우	그다지	덜	전혀
1.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신다.	1	2	3	4	1	2	3	4
2.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신다.	1	2	3	4	1	2	3	4
3.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1	2	3	4	1	2	3	4
4.나에게 쌀쌀하게 대하신다.	1	2	3	4	1	2	3	4
5.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하신다.	1	2	3	4	1	2	3	4
6.나에게 다정하시다.	1	2	3	4	1	2	3	4
7.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1	2	3	4
8.내가 어른스러워지길 원하신다.	1	2	3	4	1	2	3	4
9.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하신다.	1	2	3	4	1	2	3	4
10.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하신다.	1	2	3	4	1	2	3	4
11.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기신다.	1	2	3	4	1	2	3	4
12.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신다	1	2	3	4	1	2	3	4
13.나를 어린애 취급하신다.	1	2	3	4	1	2	3	4
14.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듯하다.	1	2	3	4	1	2	3	4
15.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신다.	1	2	3	4	1	2	3	4
16.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신다.	1	2	3	4	1	2	3	4
17.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1	2	3	4	1	2	3	4
18.나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신다.	1	2	3	4	1	2	3	4
19.어머니/아버지에게 의존심을 갖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20.어머니/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	2	3	4
21.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신다.	1	2	3	4	1	2	3	4
22.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다.	1	2	3	4	1	2	3	4
23.나를 과잉보호하신다.	1	2	3	4	1	2	3	4

24.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25.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다음은 사람들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칸에 0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진다.	㉔정말 그렇다.
		①별로 그렇지 않다.
		②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산다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 버리고 싶다.	㉔정말 그렇다.
		①별로 그렇지 않다.
		②전혀 그렇지 않다.
3	당신은 '살'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㉔살아 있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①살아 있다는 것과 죽는 것이나 그저 비슷비슷하다.
		②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
4	당신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까?	㉔전혀 없다.
		①약간 희망하고 있다.
		②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5	당신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㉔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①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다 운명이라고 생각된다.
		②나는 특별히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6	당신에게 일단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지속 됩니까?	㉔잠깐 생각났다가 금방 잊어버린다.
		①비교적 오랜 시간 생각이 지속 된다.
		②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7	당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㉔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①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②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8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㉔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그런 생각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②그런 생각을 받아 들인다.
9	당신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억제/통제할 수 있습니까?	㉔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나도 잘 모르겠다.
		②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당신이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㉔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㉑주변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살 시도를 망설일 것이다.
		㉒주변의 환경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11	당신은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㉔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㉑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현실에 도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㉒현실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 해결/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12	자살 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자살 시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았습니까?	㉔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
		㉑자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㉒자살시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 보았다.
13	당신은 “정말로 내가 자살을 시도했으면”하고 생각합니까?	㉔그렇지 않다.
		㉑잘 모르겠다.
		㉒그렇다.
14	당신은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㉔없다.
		㉑완전하진 않지만 있다.
		㉒완전하게 준비했다.
15	당신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㉔실제로 자살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㉑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㉒나는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다.
16	자살 시도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또 사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㉔별로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사용할 기회도 없을 것 같다.
		㉑내가 생각한 방법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㉒내가 생각한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며,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7	당신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나 이와 비슷한 글을 써본적이 있습니까?	㉔없다.
		㉑시작했다가 그만 두었다.
		㉒완전하게 써 본적이 있다.
18	당신은 죽음에 대한 준비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㉔없다.
		㉑생각만 해보았다.
		㉒있다.
19	당신은 “당신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합니까?	㉔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㉑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만두곤 한다.
		㉒남이 알아챌까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다음은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칸에 0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1.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2.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1	2	3	4
3.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1	2	3	4
4.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1	2	3	4
5.내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6.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1	2	3	4
7.나는 학교생활 중에서 수업시간이 즐겁다.	1	2	3	4
8.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1	2	3	4
9.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1	2	3	4
10.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1	2	3	4
11.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12.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13.선생님은 나를 귀여워한다.	1	2	3	4
14.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	2	3	4
15.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	2	3	4
16.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한다.	1	2	3	4
17.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 이상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8.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많다.	1	2	3	4
19.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20.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	2	3	4
21.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1	2	3	4
22.학급에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23.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1	2	3	4
24.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25.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1	2	3	4

26.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	1	2	3	4
27.나는 수업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28.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1	2	3	4
29.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1	2	3	4
30.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31.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렵다.	1	2	3	4
32.나는 등교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빠짐 없이 0 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남 (), 여 ()
2. 나이: 만 () 세
3. 학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 학교 성적: 상위권 (), 중상위권 (), 중위권 (), 중하위권 (), 하위권 ()
5. 부모님의 생존 여부: 모두 생존 (), 아버지 사망 (), 어머니 사망 (),
계부 (), 계모 (), 부모 별거 중 (), 부모 이혼 ()
6. 흡연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
7. 음주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린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